

GUCCI



#gucciondbeyond  
gucci.com

# Style

조선일보

SEPTEMBER  
2017  
vol.162





*Cartier*

CELEBRATING 100 YEARS OF TANK



TANK LOUIS CARTIER WATCH





**BURBERRY**





20



08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최상의 이탈리아인 셀리티로 완성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토즈의 2017 F/W 컬렉션 광고 캠페인이다. 모델이 들고 있는 토즈 셀라 백은 경쾌한 라빙 디테일과 견고한 스타일링 특징이다. 미니, 스몰, 미디엄 등 세 가지 사이즈와 다양한 컬러, 탈착 가능한 슬더 스트랩을 통해 여러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3438-6008



10

22



- 14 **GO BERLINERS, 도시 재생의 길을 제시하다** 13세기 상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다가 점차 군사적 요충지로 부각한 도시. 히틀러의 광기 어린 약행의 희생양이자 참사의 현장이 됐던 곳. 그리고 차츰 히틀러로 분열했다가 지금은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창조적 영혼을 지닌 이들이 가장 머무르고 싶어 하는 핫 스팟. 베를린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왔다. 그저 통일 독일의 수도에 걸맞은 위상을 되찾으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민과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많은 창의적 인력의 만남, 충돌, 자연스러운 융화에 힘입어 이색적인, 무엇보다 참으로 매력적인 크리에이티브 허브가 된 베를린은 도시 재생의 선례를 남겼다.
- 16 **2017 F/W MEN'S TREND** 빅 브랜드와 언더그라운드 의믹스 매치, 패션 하우스와 스포츠 브랜드의 협업, 그리고 아늑한 옷장에서 찾아낸 2017 F/W 컬렉션의 하이라이트를 파헤쳐보자.
- 18 **COLOR ME** 교조미와 세련미, 화려함까지 모두 담아낸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의 컬러풀 다이얼 워치.
- 20 **BRILLIANT HERITAGE** 정교한 하이 주얼리의 기품은 반짝이는 첼나의 순간에도 찬란하게 빛난다. 당장이라도 소리가 날 듯 여린 아름다움을 뽐내며 은방울꽃, 악어 비늘을 네크라판에 드리워줄 빛나는 세공력이 눈부시다. 붉은 바다를 유영하는 하이 주얼리 컬렉션.
- 22 **TIMELESS ICON** 다시 김화선이다. 아름다운 여성의 아이콘으로, 우아한 내면의 힘을 지닌 여배우로 돌아왔다. 지금 가장 빛나는 그녀가 티파니의 새로운 워치, 메트로(Metro) 워치 컬렉션과 조우했다.
- 28 **PACT ACT** K-뷰티의 대표 주자를 넘어, 글로벌 뷰티 하우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쿠션 팩트. 지난해 디올과 입생로랑에 이어, 이번엔 파운데이션의 명가 조르조아 아르마니를 포함한 스킨 메이크업의 최강자 샤넬, 그리고 나스까지 승부수를 던졌다. 여기, 프리미엄 쿠션 팩트의 또 다른 서막이 열렸다.
- 29 **LUXURY ESSENTIAL** 섬세한 감성과 최상의 퀄리티를 지향하는 분다삼 럭셔리 에센셜 컬렉션. 소재 고유의 아름다움과 기능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쿨한 실루엣이 매력적인 퍼 컬렉션을 소개한다.
- 30 **BOLD INFLUENCE** 자유분방하고 대담하지만 단단함은 잃지 않았다. 강렬한 인상으로 스트리트를 장악할 올 가을, 겨울 남성들의 패션 포트리프트.
- 38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일보>가 당신의 가을 화장을 대를 리뉴얼할 뷰티 신상품을 제안한다.

# Style 조선일보

Issue.162 September 2017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배미진 mj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연 정고·미케일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포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Salvatore Ferragamo





사진: 박민준  
포토그래피: 김민준

**Jewel**  
**A LADY ON TOP**

작은 포인트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진다.  
섬세함과 우아함이 깃든 브로치 컬렉션.

(왼쪽 아래부터)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로 장미리를 형상화한 티파니 인헌트 드래곤과이어 브로치 가격 미정 **타피니**, 16mm 크기  
의 마베 진주를 실버 스퀘어 보드에 세팅한 마베 진주 브로치가 가격 미정 **타피니**, 우아하고 신비로운 마요르말로 꽃잎을 표현한 로  
즈 드 노엘 클립 1천원대 **타피니**, 리본을 모티브로 한 하얀색 진주 브로치 모두 가격 미정 **타피니**, 에디터 **배미진**



**창담동에 들어선 새로운 감성의 미식 공간 'SPC 플레이'**

서련된 감성의 시문화 접할 수 있는 미식 공간이 또 하나 생겼다. 식문화의 선두 주자 중 하나인 SPC 그룹이 서울 창담동에 최  
근 문을 연 새로운 플래그십 스토어인 'SPC 플레이(SPC PLAY)'다. SPC 플레이는 한남동의 랜드마크인 '패션 5', 복합 외식 문  
화 공간 'SPC 스퀘어'에 이어 SPC 그룹이 세 번째로 선보이는 플래그십 스토어. 외식과 공부하고 다채로운 체험을 접할 수 있도  
록 설계한 문화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Play Harder! Eat Better!'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총 3개 층으로 구성된 이 공간의 1층은  
자네해 말부터 운영하는 웨이크업, 2층은 라그라리아 그릴 & 플레이, 3층은 바스카르티노 브라운으로 구성돼 있다. 건물 외부에는  
브랜드 공간을 잇는 '시닉 인피니티 미러(scenic infinity mirror)' 엘리베이터와 SPC 플레이를 상징하는 디자인 파사드가 설치  
돼 있어 외관에 신경 쓴 흔적을 느낄 수 있다. 또 SPC 플레이를 통해 새롭게 선보인 라그라리아 그릴 & 플레이는 SPC 그룹의 이  
탈리언 캐주얼 레스토랑 라그라리아에 'fun' 요소를 접목해 더욱 밝고 즐거운 분위기를 제공한다. 푸드인텐트 콘셉트에 맞  
춰 테이블 축구 게임, 디지털 주크박스 등이 있는 '게임 존'과 다양한 수제 맥주를 제공하는 '크래프트 비어바', 전문 셰프가 즉석  
에서 출판 요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데판 코스 요리', 특별한 파포머스와 함께 제공되는 '라이브 디저트' 등 흥미로운 요소를 담백 담  
았다.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327, 에디터 **고성민**



**FALLING IN PARADISE**

인촌공원에서 차로 10분 내외 거리에 위치한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Paradise City)는 지난 4월 20일 문을 연, 동북아시아 최초의 복합 리조트다. 오픈과 동시에 많  
은 이들의 관심을 끈 이유 중 하나는 일선시도로 맨디니의 대표작인 '프루스트' 의자를 비롯해 일본의 설치미술가 구사마 아오이, 데이미언 하스트 등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  
은 물론, 오수환, 이강소 등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 총 2천7백  
여 점의 작품을 리조트 곳곳에 전시해, 머무는 내내 미술을 향유할 수 있어 방문객들  
의 예술적인 감성까지 충족시키는 복합 문화 공간 역할까지 훌륭하게 해낸다. 마치 해  
외여행을 온 듯 이국적인 분위기의 건축물과 다채로운 가족형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이미 입소문이 났다. 아직도 경항하지 못했다면,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몰링 인 파라다이스 테마로 진행되는 가을 파카자를 눈여겨보자. 먼저, 합리적인 가  
격으로 파라다이스 시티를 실속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스테이 앳 파라다이스(Stay at  
Paradise)'와 '스마트 아텀(Smart Autumn)' 파카자가 준비되어 있다. '스테이 앳 파  
라다이스' 파카자는 실내의 수영장,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존, 피트니스 센터 등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스마트 아텀'은 부대시설 이용 혜택을 포함한 10만원 상당의 파라다이스  
크레딧을 제공해 파라다이스 시티 내 레스토랑과 바(bar), 부대시설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연인과의 로맨틱한 여행을 꿈꾼다면, 파라  
다이스 시티 클럽 라운지 이용 혜택이 포함된 '선셋 라운지(Sunset Lounge)' 파카지  
를 추천한다. 조식 뷔페부터 티타임, 저녁 해피 아워까지, 말 그대로 올데이 풀코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묘한 기증 모임을 원한다면, 파라다이스 시티 인기 상품인 '플  
레이 모어 워드 파라다이스(Play More with Paradise)'도 주목할 만하다. 패밀리 라  
운지뿐 아니라 실내외 수영장 2회 입장권과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존 등 20만원 상당의  
파라다이스 크레딧을 제공한다. 가족, 연인과 함께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갇히는 가  
을날의 낭만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 문의 1833-8855 에디터 **이현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Interview**  
**SERPENTI BY NICHOLAS KIRKWOOD**

불가리 대표 아이콘, 세르펜티 컬렉션의 상징적인 뱀 모티브 콜로저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시그니처 액세서리  
라인 '세르펜티 포에버'가 수즈 디자이너 니콜라스 커크우드의 감각적인 시선을 통해 새롭게 재해석되었다.  
독창적인 세브론 패턴으로 시선을 끄는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인 디자이너 니콜라스 커크우드를 만났다.

**01 불가리 대표 아이콘, 세르펜티 컬렉션 최초의 컬래버레이션이라 전해 들었다. 첫 번째 협업 파트너가 된 소감이 어떨지?** 불가  
리는 이번 세르펜티 포에버 컬렉션의 협업을 기점으로 향후 젊은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임을 밝혔  
는데, 영광스럽게 첫 번째 협업 파트너로 선정돼 매우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편집인 분디에서 이번 컬  
렉션들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네요. **02 세르펜티는 1백30년이 넘는 불가리의 역사와 깊은 전통적인 아이콘이다. 당신  
만의 디자인적 주 무기를 통해 어떻게 이번 컬래버레이션 컬렉션을 풀어놓는지 궁금하다. 어떻게 하면 불가리의 아이코닉한 성질  
을 가장 나답게 재해석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불가리의 전통적인 세르펜티에 담긴 수공예적인 장인 정신을 그대로 보존하되, 런  
던의 핑거링과 절고 예지 있는 무드를 더해볼까로 결정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세르펜티 에드를 좀 더 유려하고 인체 공학적인 디자  
인으로 바꾸었고, 저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세브론 패턴을 적용하기로 했죠. 결과적으로 뱀 콜로저 장식과 함께 블랙 & 화이트 서  
로 코퍼되는 세브론 패턴을 보니 자랑적인 독사의 움직임을 연상시키고, 한층 입체적이고 글래머러스하게 표현된 거 같아 만족합니  
다. **03 불가리 니콜라스 커크우드의 컬렉션이 탄생하기까지 영감을 받은 특별한 순간은 언제인가. 이 프로젝트를 맡고 나서 총 두  
번 특별한 순간을 맞았습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로마에 위치한 불가리 하이 주얼리 아틀리에와 피렌체에 있는 불가리 기공 공장을  
방문한 것입니다. 공장에서 숙련된 장인들이 다이아몬드를 세팅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번 세브론 패턴에 장식한 스톤과 바로 그  
곳에서 본 다이아몬드 세팅 아틀리에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죠. 아틀리에 분들이 예상치 못한 하트 디자인에 녹여주는 점  
자의 장점이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로마에서 열린 세르펜티 폼 전시를 관람했는데, 이 전시에서 자연스럽게 불가리 빈  
티지 주얼리에 관심이 생겼고, 실제 엘리자베스 태피리가 소유했던 빈티지 목걸이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대표작인 예가 바  
로 세르펜티 백인 달개 부부, 기증보다 직접 차원이 다름처럼 느껴져서, 이는 목걸이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팔찌를 표  
현한 것입니다. **04 실용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계획인가? 평범한 백은 시중에 많이 선보이고 있  
고, 이미 보유했던 것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세브론 패턴이 특별하게 즐길 수 있었죠. 이번 시즌 좀 더 갈라진 체인 디테일  
로 크로스 보드라인과 슬더 스타일 등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고, 세미파사이드 측면에서는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실용함도  
갖췄기에 실용성을 중시하는 한국 소비자들도 잘 어울릴 거라 생각합니다. 에디터 **이지현********



**Exhibition**  
**박선기 작가 개인전, <자연(Nature)>**

국내외에서 갈수록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박선기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숲을 활용한 설치 작품'으로 유명한 박선기 작가의 개인전 '자연(Nature)'이 서  
울 이태원에 위치한 갤러리 비케이(Gallery BK)에서 오는 10월 1일까지 개최  
된다. 이번 전시는 박 작가의 시그니처 시리즈 중 평면의 고정된 시점을 비튼 조  
각과 부조 작품 'Point of View', 숲을 이용한 설치 작품 'An Aggregation' 등  
2017년 신작을 볼 수 있는 기회다. 박 작가는 작품 'Point of View'에 대해 "시점  
에 관심을 두고 조각에 적용한 지 오래였다"며 "조각이라는 3차원 입체에 원근  
법적 시점을 가미함으로써 조각의 특징인 양감이나 무게, 더욱이 형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질감을 완벽하게 재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부조에서  
출발해 주변을 제거하고 난 다음 시점을 조각과 접목하면서 회화적 표현을 가능하게 했기에 불인 체목이라고. 또 'An Aggregation'에 대해서는  
"자구상에 존재하며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의 최후 모습인 숲을 재료로 선택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즉 인간과 건축 문화(文化), 자연(自然)의 관  
계를 표현적으로 나타냈다"라고 설명했다. 갤러리 홈페이지 www.gallerybk.co.kr 에디터 **고성민**



**Ermenegildo Zegna**  
**DEFINING MOMENTS**

ROBERT DE NIRO and BENJAMIN MILLEPIED, NY, 9am  
DISCOVER THE CONVERSATION AT ZEGNA.COM #ZEGNACONVERSATIONS





레드와 핑크 컬러 모노그램 캔버스가 돋보이는 핑크 70만원대 루이 비통.

브랜드의 상징적인 뱀 모티브 세르펜티 장갑 장식 포인트의 솔다백, 19X15cm, 2백70만원대 팔기다.

그린 컬러의 100% 양모로 1백20만원대 에르메스.

연가죽 소재의 특은 스웨이드 신발가죽 미장 핑크로 패기다.

기존 카에라 백을 일라스트라에 워트 있게 재해석한 벨벳 카에라 백, 20X14cm, 3백30만원대 프라다.

전반적으로 옅어 스웨이드 소재의 카에라 백이

네크라인과 소매, 허리 라인을 따라 진주를 촘촘히 장식한 옐로 니트 1백91만원대 자형사.

세로형 다이얼을 기동형으로 과감하게 디자인한, 핑크 다이얼이 매력적인 이스트웨스트 워치, 4백만원대 타파니.

GG 로고를 강조한 핑크색 미몬트 마블레세 가죽 장갑 63만원 구피.

개, 보네 브라운 신크리스 982224원 카렌버 by 몽블랑 데뷰유.

베르데의 핑크 컬러의 핑크 로즈 레노의 코팅 만능필 1백50만원 몽블랑.

하트의 입술 모티브가 앙증맞은 드림 이어링 가격 미정 디스케어드2.

도형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스와로브스키 장수의 반지 37만원 스와로브스키.

브랜드를 상징하는 라이닝 디테일의 삭스 18만원 톨 브라운 by 10 코르스 코모.

붉은색 코인 팬던트 메인 트래슬러가려 미장 자형사.

- 자형사 02-517-7560
- 에르메스 02-542-6622
- 루이 비통 02-3432-1854
- 팔기다 02-2056-0171
- 살바토레 페라기오 02-3430-7854
- 프라다 02-3218-5331
- 구찌 1577-1921
- 올티갈 데뷰유 02-522-4343
- 몽블랑 1670-4810
- 스와로브스키 1661-9060
- 엘보 02-3449-5916
- 팬디 02-2056-9023
- 타파니 02-547-9488
- 디스케어드2 02-3445-3107
- 10 코르스 코모 02-3018-1010

소매의 링크 트라방이 포인트인 레드 코트 4백41만원 팬디.

강남구 압구정로 458 - SEOUL  
02. 514. 0900



moncler.com



LIU BOLIN PERFORMING FOR MONCLER





for him  
**Selection**

남성의 역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표출해줄, 에너지적인 무드를 뽐어내는 비비드 컬러 셀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차분한 가을 목에 포인트가 되어줄 블루 프레임 선글라스 15만원 오피타입 더블유.

신호등 행을 걸러 세이프하고, 가죽 포인트를 자갈 1만원 오피타입.

포인트 액세서리로도 활용할 수 있는 라인 컬러 무선 스타레오 헤드셋 39만원 오피타입 소니.

강렬한 레드 컬러가 돋보이는 바진 울 소재의 재킷 2백만원 오피타입 더블유.

잡은 풀한 손이 지갑을 열어 완성한 백 참 50만원대 삼버드레 페라기모.

타기 7족 소재의 투투 벨트 60만원대 루이비통.

레드 컬러 스니커즈 80만원대 오피타입 더블유.

플러시 자수 뉴크로마티 40만원 오피타입.

가볍고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백팩, 30x42cm, 가격 미정 디폴.

박쥐 모티브의 머스타드 컬러 니트 1백20만원, 화이트 셔츠 85만원대 모두 구찌.

레드 컬러 테크니컬-리트 스니커즈 60만원대 Z 제너.

공방량 1670-4810 벨루티 02-547-1896 소니 1588-0911 발렌티노 02-2015-4653 다들 02-3438-0104 카톤 02-6905-3787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50 루이비통 02-3432-1854 Z 제너 02-3453-2287 구찌 1577-1921 맨디 02-2056-9023 오메가 02-511-5797 삼버드레 페라기모 02-3430-7854 프라다 루나사 스포츠 02-3443-1805 오피타입 더블유 02-522-4343

호크 장식의 가죽 포드롤리우 백, 22x16.5cm, 1백45만원 구찌.



Brooks Brothers

THE ORIGINAL AMERICAN BRAND

롯데 본점 5F | 02.772.3456    롯데 잠실점 5F | 02.2143.7682    롯데 강남점 5F | 02.564.1886    현대 본점 4F | 02.3438.6231  
현대 판교점 6F | 031.5170.1634    현대 대구점 2F | 053.245.2270    신세계 센텀점 5F | 051.745.2855    스타필드 하남 2F | 031.8072.8340

BROOKSBROTHERS.CO.KR





# Go Berliners, 도시 재생의 길을 제시하다

13세기 상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다가 점차 군사적 요충지로도 부각한 도시, 히틀러의 광기 어린 악행의 희생양이자 참사의 현장이 됐던 곳. 그리고 처참히 동서로 분열됐다가 지금은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창조적 영혼을 지닌 이들이 가장 머무르고 싶어 하는 핫 스폿. 베를린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왔다. 그저 통일 독일의 수도에 걸맞은 위상을 되찾으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보다는 주민과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많은 창의적 인력의 만남, 충돌, 자연스러운 융화에 힘입어 이색적인, 무엇보다 참으로 매력적인 크리에이티브 허브가 된 베를린은 도시 재생의 선례를 남겼다.

역동적인 도시 베를린에서도 활기 넘치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 그렇다고 떠들썩하지만은 않다. 녹음의 청신함이 물씬 풍기는 숲을 낀 공원도 곳곳에 있는데, 그중 한 작은 공원을 지나 정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알렉산드린 거리(Alexandrinen Straße)에 진입하면 범상치 않은 커다란 콘크리트 건물과 맞닥뜨리게 된다. 상층부의 하얀색 타일을 제외하고는 연한 갈색을 띠는 이 건축물 위에는 진노란색 불꽃을 연상시키는 작품이 자리해 시선을 절로 잡아끈다. 이곳은 현대미술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른 베를린에서도 명성 높은 코니히 갤러리(König Galerie)에서 2년 전 새로 마련한 전시 공간. 근사한 조각 작품들이 자태를 뽐내는 아담한 정원과 카페, 사무실 등이 함께 위치한다. 코니히 갤러리를 찾아간 날, 마침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아티스트이자 개관주인 공인기도 한 카타리나 그로세(Katharina Grosse) 전시가 열리고 있었는데, 발길을 들여놓자마자 웬지 모르게 차분해졌다. 투박한 외벽의 느낌과는 다르게 빛이 부드럽게 공간 내부를 감싸는 전시장은 고아한 미를 머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짝 송고한 느낌마저 준다. 사실 이곳은 유서 깊은 성 아그네스(St. Agnes) 교회가 있던 자리였는데,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던 건물이 갤러리 주인인 요한 코니히(Johann König)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났다. 그렇다고 건축물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식으로 역사적인 흔적을 없애지는 않았다. 가공하지 않은 재료를 활용한 차갑고 거친 건축 조형 미학을 특색으로 하는 브루탈리즘(Brutalism)이 여전히 외관에서 묻어나되 내부는 밝아지고 온화해졌다. 최고의 현대미술 작품을 품기에 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 아품을 승화시킨 '도시 재생의 멋진 예

코니히 갤러리 프로젝트는 재생 건축의 싹 싹은 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베를린에서는 그다지 희귀한 사례가 아니다. 베를린이라는 도시 자체가 '재생의 아이러니'이기 때문이다. 베를린 중앙역 근처에 자리한 함부르크 반호프(Hamburger Bahnhof)만 해도 제2차 세계 대전으로 파괴된 기차역을 현대미술관으로 개조한 예이고, 수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먼 곳에서 일부터 찾는 미술관 잠동 보로스(Sammlung Boros) 역시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 공습을 피하기 위해 만든 도시의 유일한 지상 벙커였다(그래서 지금도 '벙커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또 참혹한 동서독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을 둘러싼 기승 저런 상흔조차 캔버스로 활용한다. 1.3km 길이의 벽을 세계 곳곳의 아티스트들이 저마다의 그림과 그래

피티로 채운 도시의 또 다른 명물 '이스트사이드 갤러리(Eastside Gallery)'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공간들이야말로 한때 전쟁과 분단의 비극으로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라고 불릴 정도로 처참히 무너진, 그래서 우울함과 패배 의식으로 점철된 도시를 되살린 재생의 표징인 셈이다. 베를린은 런던, 파리, 뉴욕 등 지구촌 어느 도시와 견줘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생기 넘치는 창조 도시로 손꼽힌다.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3백50만 정도인 베를린 인구의 10% 이상이 아티스트, 건축가, 디자이너, 음악가, 게임 개발자, 영화 제작자 등 창의 산업 분야 종사자이며, 이들이 이 도시의 경제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분의 1이 넘는다고 한다. 이른바 '창조 계급(creative class)'으로 불리는 일꾼들이 이끌어나가는 도시인 셈이다. 유럽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인재가 모여드는 건 당연지사. 최근 5년 사이 베를린에 생겨난 문화 예술 관련 일자리만 12만 개라고 하니, 도시의 포용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인구 성장세도 두드러진다. 최근 베를린 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오는 2030년에 도시 인구가 3백8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인기 있는 도시의 수명이라고 해야 할까? 이는 불과 10년 전에 내놓은 예측치(3백47만 명)와는 현저히 다른 양상이다.

## 인재, 기술, 관용의 토대 위에서 자라는 다양성과 역동성

창조 도시 이론의 대가 중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그가 생각하는 창조 계급이 융성하는 도시를 위해서는 3개의 '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인재'는 단순히 그 사회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에서 양성되는 뛰어난 인력만 가리키는 게 아니다. 바깥세상의 다채로운 개성과 장점을 갖춘 인재가 유입되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혼종의 시대에 걸맞은 인적 환경은 서로 다른 시기가 부딪치고 어우러지는 '우연한 충돌'의 작용으로 창조성을 꽃피우는, 다양성이라는 요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양각색의 인재가 모이게 하려면 사회 차원의 관용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법이다. 지금 베를린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제대로 빛을 발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일각에서는 독일과 일본 같은 나라들이 창조 도시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 다양성 면에서 뒤처진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적어도 베를린은 그 반대편에 있는 좋은 예일 것이다. "낮은 진입 장벽 덕에 많은 소매상,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보다 최근에는 레스토랑 경영자들이 혜택을 입었다."(《모노클(Monocle)》에서 발간한 단행본 <베를린> 중에서). 이 도시의 포용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베를린 시내에 있는 폭스바겐 그룹의 한 전시장 풍경만 봐도 그런 면모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다. 거리를 걸다가 우연히 시야에 들어온 이곳은 언뜻 봐도 평범한 자동차 쇼룸 같지는 않았다. SF 영화에서 나올법한 미래적인 디자인의 공간에 용도를 가늠하기 힘든 첨단 장치들이 세팅돼 있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몸이나 얼굴을 동일해가면서 평가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 <Ars Electronica>라는 전시였는데, 특히 수백 개 평면 인형 앞에서 관객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흥에 겨운 역동적인 모습에 절로 시선이 쏠렸다. 알고 보니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모은 펙귄 미러(Penguins Mirror)라는 작품. 센서를 장착한 인형을 바라보면서 동작을 취하면 펙귄들이 이에 즉각 반응하면서 양방향으로 연신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귀여운 군무를 보는 듯했다. 이렇듯 관람객들이 첨단 시스템에 몰수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체험으로 호응을 자아낸 이 전시에 참가한 디자이너들의 프로필을 보면 미국, 영국, 한국, 일본, 아르헨티나 등 꽤나 다국적이다. 서로 작품의 작동 메커니즘을 알려주고 체험 현장을 지켜보면서 웃음보를 터뜨리는 관객들 역시 외모만으로도 다채로운 지구촌 식구의 면면을 여실히 드러냈다.

## 비극의 아이러니에서 섰던 핫 스폿으로 거듭난 배경의 또 다른 주인공

인구에 비해 면적이 적지 않은 데다(891.85km) 창조 도시로 쑥쑥 성장해가는 도시여서일까. 독일의 수도다운 침단과 진풍, 역동성, 인프라가 다 존재하면서도(적어도 아직까지는) 여유로움과 관대함이 묻어나는 이곳에서는 어느덧 뉴욕, 파리에겐 못지않은 자부심이 투영된 베를리너(Berliner)라는 단어가 자주 들린다. 하지만 불과 15년 전만 해도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전쟁과 냉전 시대의 아픔을 가장 많이 떠안은 수밖에 없는 상징적인 도시가 바로 베를린이 아니던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분할 통치 체제를 맞이하면서 자유주의 진영이 차지한 서독의 수도 서베를린, 공산주의 진영이 차지한 동독의 수도 동베를린으로 갈라져 있던 기구한 운명이 그 유명한 베를린 장벽을 탄생시켰다. 1989년, 장벽이 무너지고 이듬해 통일을 일궈냈지만, 베를린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차츰 부활의 길로 접어들었다. 유럽 어느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와 임대료 덕분에 젊은이들, 특히 힙스터, 미술가, 건축가 등 문화 예술 분야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다. 이 배경에는 아마 한 도시의 시장으로는 뉴욕 시장 부럽지 않게 대중적인 인기와 유명세를 누린 인물인 클라우스 보베라이트(Klaus Wowereit)가 있다.

2001년 40대 후반의 나이로 시장에 당선된 보베라이트는 동성애자임을 당당하게 밝힌 세련된 언변과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로, 베를린을 '가난하지만 섹시한(poor but sexy)' 도시로 묘사하면서 유럽에서 젊은이들과 예술인이 가장 사랑하는 핫 스폿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일조했다. 관광 인프라를 키우고 일자리 늘리기를 추진하면서 한때 메르켈 총리의 대항마로도 주목받았지만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신 국제공항 건설이 꼬이면서 정치 노선에 비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결국 2014년에 조기 사임했다.

## 강제 복원이 아니라 참여적, 창의적인 재생의 매력

보베라이트 시장의 중도 하차에 많은 이들이 아쉬워하기도 했다. 언론에서 신임 시장인 미하엘 뮐러(Michael Müller)를 두고 '덜 매력적인(less glamorous)'라는 표현을 대놓고 쓰기도 했을 정도다. 하지만 뮐러 시장이 대중적인 인기가 덜하다 해도 베를린의 성장 엔진은 여전히 기운차게 돌아가고 있다. 물론 베를린이라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집세가 고공 행진을 하면서 인기 있는 미테 지역이나 크로이츠베르크에 살던 이들이 번두리 지역으로 이동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고, 지금도 주거난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주자가 많아지면서 노동자 인권, 임금 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베를린에 흐르는 창조적인 에너지와 패기, 관대함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여러모로 비싸졌다고는 해도 아직은 보테, 페르가몬, 알테스 등 박물관과 미술관이 몰려 있는 '박물관 섬(Museuminsel)'을 다 돌아볼 수 있는 입장권이 18유로인 점을 감안하면(물론 문화 부흥과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 차원의 가격이기는 하지만) 뉴욕, 런던, 파리, 베니스의 살 떨리는 물가 수준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연 많은 도시의 부활이 많은 이들의 선행을 받는 이유는 그 과정이 단순한 정부가 주도한 복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창업가, 아티스트가 자연스럽게 뭉치고 의기투합해 협업을 꾀하는 공동체적인 힘에 이끌린 면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베를린에는 '도시 안에 여러 도시가 있다'는 표현이 있을 만큼 저마다의 개성이 묻어 있는 서브컬처가 꿈틀거리는 지역이 많은데, 아마도 자생적인 부활, 자유롭고 다채로운 영감의 소산이 아닐까 싶다. 파란만장한 역경을 딛고 유럽의 핫 스폿으로 거듭난 베를린, 이제는 가난하지만 섹시한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부유했어도 여전히 매력적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하다. **글 고성연**



# 2017 F/W Men's Trend

빅 브랜드와 언더그라운드 의 미스 매치, 패션 하우스와 스포츠 브랜드의 협업, 그리고 아빠의 옷장에서 찾아낸, 2017 F/W 컬렉션의 하이라이트를 파헤쳐보자.

**Trend 1. Dad Core** 몇 시즌 전만 해도 할머니 옷장에서 꺼낸 듯 빈티지한 플라워 패턴과 보헤미안 무드가 느껴지는 그래픽 룩이 유행이더니, 이제는 이제 패션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다. 좀 더 패션적으로 설명하자면, 1990년대 복고 감성에 핑크 룩을 조금 더 기하학 클 데다 룩이다. 그중 이번 시즌 디드 코어 트렌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컬렉션은 바로 베네통의 수장, 덴나 즈바실리아가 소개한 발렌시아가의 두 번째 남성복 컬렉션이다. 그는 이번 시즌 정의한 발렌시아가 맨에 대한 해답을 자신이 속한 커어링 그룹의 충실한 직원에게서 찾았다. 그들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며, 젊은 시절엔 어떤 옷을 입었는지 상상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컬렉션을 완성했다고. 그렇게 탄생한, 아빠 옷장 속 오래된 양복을 연상시키는 박시하고 직각적인 테일러링 코트, 넥타이와 핀까지, 발렌시아가뿐 아니라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르메스, 에르메네제르 제나 등에서도 선보인 루스한 실루엣의 맥시 롱 코트의 관련 포인트는 살짝 드물던 어깨 라인으로 둥근 실루엣을 강조한 오버사이즈다.

**Trend 2. Street Swag** 이번 시즌 힙스터들이 가장 눈독 들인 만한 스트리트 스타일을 선보인 루이 비통의 2017 F/W 컬렉션을 보면 스트리트 트렌드 키워드가 명확히 보인다. 바로 인기 스트리트 브랜드 슈프림(Supreme)과의 슈퍼 컬래버레이션을 공개하며 그 어느 컬렉션보다 파격적인 시도를 했기 때문. 슈프림 로고를 새긴 빨간색 백은 소가 끝난 직후 SNS 피드에 도배되듯 올라왔고, 남성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의 위시 리스트에도 당당히 상위에 올랐다. 루이 비통을 필두로 구찌와 발렌시아가, 발렌티노, 프라다에 이르기까지 많은 다른 빅 브랜드에서도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그들만의 재기 발랄한 사고와 절충적인 감각으로 보다 럭셔리하게 해석해 선보였다. 중고 옷 가게에서 불법한 빈티지한 아이템을 독특한 감각으로 레이아웃해 화려한 스타일링을 뽐낸 스트리트 룩이 그것으로, 데님 재킷부터 V넥 니트 톱, 화려한 프린트드 스웨트셔츠, 체크 셔츠 등 일상적인 캐주얼 아이템을 좀 더 대담하고 자유롭게 스타일링해 최대한 클하고 액티브하게 표현한 것이 포인트. 지난 시즌 부터 많은 럭셔리 브랜드에서 선보인 볼 캠프나 데리도 클한 포인트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다.

**Trend 3. Hybrid Suit** 몇 시즌째 전통적인 포멀 슈트에서 벗어나, 소재의 경량성을 살린 여유로운 실루엣이 주목받고 있다. 루스한 실루엣의 슈트를 통해 고급스러움과 스트리트 감성을 함께 보여주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 발렌시아가는 지난 시즌에 이어 어깨의 형태를 강조한 재킷으로 상의의 볼륨감을 더한 더블 버튼 스타일을 내놓았는데, 이는 에르메스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번 시즌 슈트는 단지 여유로운 실루엣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바로 에슬레저 감성이 일상화되면서 활동성을 고려한 스포티한 디테일과 기능을 첨가한 슈트 셋업이 급부상한 것. 에르메네제르 제나는 '궁극의 장인 정신과 현대적인 미학, 완벽한 테일러링을 강조한 아웃도어 룩'이라고 이번 컬렉션의 테마를 정의했다. 이세이 미야케, 날버렛 쇼에서도 하이브리드형 테일러링 재킷과 조커 팬츠의 매치를 선보이는 등 최고급 테일러링 슈트와 스포츠 웨어의 결합은 이번 시즌 키 포인트로 떠올랐다.

**Trend 4. New Nerd** 일명 '글렌'이라 불리며 어린 시절을 상기시키는 추억의 소재 코듀로이의 활약이 더욱 대방해졌다. 바로 울과 코튼의 넥스트 버전이라는 평가를 받은 만큼 스페셜한 패턴의 중 하나인 코듀로이 남성복과 여성복 컬렉션 전반적으로 영역을 확장한 것. 사실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보여준 첫 번째 컬렉션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너드(nerd)'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 이번 시즌에도 구찌와 MSGM은 프린트 스웨트셔츠 혹은 라운드 셔츠에 코듀로이 팬츠를 캐주얼하게 매치했고, 에르메스와 프라다는 발미칸 코트와 트랜치코트, 슈트 등 포멀 룩을 선보였다. 색상은 가을에 잘 어울리는, 노란빛을 띠는 거자색을 비롯해 브라운, 모카, 카키 등 다양한 어스(earth) 컬러로 전개했다.

**Trend 5. Sport Utility** 계속해서 이어지는 스포츠 유틸리티 감성을 바탕으로 많은 패션 하우스 브랜드에서 겨울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영감을 받은 아노락 스타일의 재창을 쏟아내고 있다. 본래 아노락은 등산을 하거나 스키를 탈 때 입는, 방풍과 방수를 위한 후드가 달린 상의를 뜻하는데, 이번 시즌엔 캐주얼한 스웨트셔츠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제안된 것. 먼저 유스 컬처를 대표하는 고사 루브친스키와 아디다스의 콜라베이션, 노스페이스와 협업한 존야 외터너베의 2017 F/W 컬렉션은 스포츠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에슬레저 룩과 스트리트 패션을 절충한 사례다. 이를 통해 스포티 아이템을 그대로 스트리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영한 감성과 실용성을 가미했다. 이와 반대로 럽랑과 보스의 쇼에서는 포멀과 레이아웃하기 쉽도록 고급스럽게 제안한 점이 돋보였다.

**Trend 6. Fur-lade** 마치 아이돌 무대에서 불법한 알록달록한 퍼 패레이드가 이번 2017 F/W 남성 컬렉션 런웨이 쇼에 펼쳐졌다. 지난 시즌에는 테디 베어 같은 러브하고 단순한 퍼를 사용했다면, 이번 시즌에는 스포티한 컬러 블로킹으로 경쾌함을 강조한 퍼 사용이 두드러진다. 펜디는 눈에 띄는 컬러의 조합은 물론, 패치워크나 레더링 모티브를 적용했으며, 투즈 또한 퍼 트리밍과 컬러 포인트 역할을 하는 시어링 등 퍼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장식적 요소로 활용한 것이 특징. 동일한 모피라도 모의 길이를 다르게 표현한 미러니와 부분적인 세이빙 테크닉을 선보인 엠포리오 아르마니 등은 퍼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부각하기도.

**Trend 7. Check It Out** 한 시즌의 트렌드를 논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영영불멸의 패턴이 있다. 바로 체크 패턴. 유독 남성복에서만큼은 체크 패턴이 수트나 롱 코트의 패브릭으로 클래식하고 올드하게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이번 시즌 남성 컬렉션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유스 컬처' 트렌드에 따라, 클래식한 체크가 유스풀한 타치를 가미한 버전으로 재탄생했다. 프라다와 미르니, 라프 시몬스, 폴 스미스는 1970년풍 건 클럽 체크(gun club check)를 마치 대학 새내기처럼 재해석해 더욱 프레시하고 영한 느낌의 재킷으로 선보였으며, 발렌티노는 포멀 슈트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격자무늬 그리드 체크를 대담한 컬러와의 과감한 믹스 매치를 통해 한층 풍성한 룩으로 승화시켰다. 울기를 당신을 화춘시켜줄 비장의 무기는 바로 체크가 아닐지, 에디터 이자현



**AIGNER**

Lea Bag

Lotte Main Avenue | Gangnam | Jamsil | Suwon | Ulsan | Hyundai Mia | Cheonho  
Kintex | Busan | Shinsegae Daegu | Galleria Time World | Debec Plaza.  
Information 02.759.0662



# Color me

고전미와 세련미, 화려함까지 모두 담아낸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의 컬러풀 다이얼 워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리케 레인드 네이플 까메오 워치 조개껍질들 정교하게 세공해 완성하는 고귀한 카메오 다이얼을 품고 있는 워치, 낭만적인 예술품처럼 보이는 해바라기 모티브의 다이얼과 브라운 컬러의 약이거죽 스트랩, 베젤과 케이스에 세팅한 40개의 다이아몬드가 대담히 화려하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571

까르띠에 발롱 블루 드 까르띠에 워치 핑크 다이얼에 핑크 옐리게이트 스트랩을 더해 시광스러운 매력을 한껏 드러낸 디자인, 브랜드를 대표하는 아이코닉한 워치에 특색 있는 컬러를 선택해도 좋다. 7백10만원, 문의 1566-7277

플가리 플가리 레이디 워치 브랜드를 상징하는 플가리 플가리 컬렉션의 뉴 컬러 워치, 브랜드에서 즐겨 사용하는 고귀한 스톤에서 영감을 받아 다양한 컬러로 선보인다. 사진 속 제품은 33mm 다이얼에 산베스트 장식의 브라운 레커 다이얼, 붉은빛의 옐리게이트 레더 스트랩을 더해 품위 있게 마무리했다. 8백만원대, 문의 02-2056-0171

타파니 아스트 웨스트 워치 1940년대에 출시한 타파니 마노에르 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클래식한 디자인의 워치, 브랜드의 시그니처 색상인 타파니 블루 다이얼에 더욱 매력적이다. 4백만원대, 문의 02-547-9488

반들리프 아펠 참 엑스트라오디네리 페 로즈 드 뉘 오잠과 꽃, 발하늘이 어우러진 예술적인 블루 다이얼, 이를 감싸고 있는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 세팅의 베젤은 오직 여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플라워 모티브 참 장식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드라마틱한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7천4백만원대, 문의 00798-852-16123

피아제 트라디셔널 오벌 워치 예술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전적인 기법으로 만든 핑크 골드 브레이슬릿에 천연 코랄린 다이얼을 매치해 보티차한 무드를 표현한 아트리프스, 브랜드 초기부터 다양한 소재로 컬러풀 다이얼을 선보여온 브랜드인만큼 컬러가 과감한 워치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부티크 한정 모델에 소장 가치가 높다. 7천만원대, 문의 02-540-2297

에거 르클트르 랑데부 문 워치 강렬하지만 차분한 파플 레드 아벤추린 다이얼이 핑크 골드 케이스와 만나 지적인 매력을 풍긴다.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다이얼과 케이스, 스티로울 발하늘을 표현한 아더오브펠 세공 다이얼의 역동성은 속속 위에 작은 우주를 구현한다. 유유자적한 문페이즈의 움직임은 여성들의 심세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섬세하게 완성한다. 6천4백만원대, 문의 02-3449-5912 에디터 배미진



GAROSUGIL BAGSTAGE 02 3444 0914  
DOSAN FLAGSHIP STORE 02 2056 0914

0914



# brilliant Heritage

정교한 하이 주얼리의 기품은 반짝이는 찰나의 순간에도 찬란하게 빛난다. 당장이라도 소리가 날 듯 여린 아름다움을 뽐어내는 은방울꽃, 악어의 비늘을 네크라인에 드리워줄 빛나는 세공력이 눈부시다. 붉은 바다를 유영하는 하이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 HERMÈS

웃꼬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상 링크로 링크 컬렉션 네크라스와 브로치. 골드 주얼리에 다이아몬드를 흠뻑린 듯 정교하게 세팅해 손끝으로 주얼리를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그 세심함을 느낄 수 있다. 화이트 컬러 네크라스에는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 9,376개를 세팅했고, 브로치에는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 2,876개를 세팅했다. 브랜드 교유의 가치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대담한 아이덴티티를 표현한 디자인이다. 모두 **에르메스**.

리튬어로 나일 악어를 뜻하는 단어에서 이름을 딴 니로티 쿨스 컬렉션 네크라스와 링. 악어가죽의 표면을 골드 주얼리로 표현해 에르메스의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비늘 무늬는 상락하고 윤곽만 표현해 피부에 아름다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로즈 골드 소재 네크라스와 링에는 그린 사파이어와 진주의 의외의 조화가 강렬한 우아함을 완성했다. 모두 **에르메스**.

## TASAKI

정교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2차원적으로 표현한 플라랜드 (Flatland) 컬렉션. 붉은 루비로 플라워 모티프를 표현한 오퍼런스(Oplence) 네크라스는 원성의 투명한 아름다움을 세심한 손길로 완성했다. 아주 작은 꽃을 자세히 들여다 보듯, 주얼리를 자꾸 들여다미 바라보게 만드는 시공스피운 디자인이다. 그 옆에 놓인 아름다운 진주의 핑크빛 광채가 특징인 네크라스는 아름답고 허얀 은방울꽃과 잎사귀를 다이아몬드와 악어아 진주로 표현한 코러스 밸리(Chorus Valley) 컬렉션. 타사키가 추구하는 궁극의 아름다움을 담았다. 오른쪽 맨 위에 리듬감 있게 은방울꽃을 표현한 네크라스 역시 코러스 밸리 컬렉션의 하이라이트 피스다. 모두 **타사키, 에디터 배미진**





티파니가 탄생한 뉴욕의 에지워 역동성, 세련된 아름다움을 간성시키는 유연한 곡선 샵슈엣이 돋보이는 메트로 2 핸드 워치. 베젤 주위를 수놓은 58개의 다이아몬드가 은은하게 빛나는 아이스 블루 다이얼과 잘 어울린다. 함께 매치한 제품은 프린세스 컷과 로즈 컷 다이아몬드 세팅 T 라인 브레이슬릿, (오르스) 5줄의 다이아몬드 세팅이 돋보이는 메트로 5 로우 링, T 스케어 브레이슬릿 모두 티파니, 블랙 퀸즈 벡토.



# Timeless Icon

다시 김희선이다. 아름다운 여성의 아이콘으로, 우아한 내면의 힘을 지닌 여배우로 돌아왔다. 지금 가장 빛나는 그녀가 티파니의 새로운 워치, 메트로(Metro) 워치 컬렉션과 조우했다.  
*photographed by ahn joo young*

가슴에 잘 어울리는 농익은 버건디 컬러의 다이얼과 약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메트로 2 핸드 워치. 여성 손목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28mm 사이즈로 제안한다. 함께 레이아웃한 로즈 골드 소재 T TWO 핸드 브레이슬릿,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메트로 핸드 밴드, T TWO 로즈 골드 링, 다이아몬드 세팅 T 와이어 FC 링 모두 티파니, 베이지 핑크 컬러 재킷 니너리저.







로즈 골드 케이스에 8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와 4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인덱스와 화이트 약아가죽 스트랩을  
매치해 우아함을 극대화한 메트로 2 핸드 워치.  
함께 레이아웃한 제품은 12mm 사이즈의  
옐로 골드 하드웨어 볼 링, 8mm 크기의  
화이트 골드 소재 다이아몬드 하드웨어 볼 링.  
(오른손) 구조적인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하드웨어 라지 링크 브레슬릿 모두 **타파니**.  
대들 버튼 체크 재킷 **앤비클라인** by **분디삼**.



로맨틱한 핑크 다이얼이 돋보이는  
다이아몬드 세팅 메트로 오토매틱 워치.  
42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TCO. 6270  
셀프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간결한 라인에 타파니 다이아몬드가  
섬세하게 세팅된 모던한 감각의 메트로 3  
로우 핸드드 밴클 **타파니**. 블랙 싱글 버튼  
롱 재킷 **이지앤미팅** by **라움**.





다이아몬드 인덱스, 6시 방향 스물 세간자가 특징이며, 로즈 골드 케이스에 라이트 브라운 악어 가죽 스트랩이 어우러져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메트로 오토매틱 워치. (오른손) 볼드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하드웨어 볼링,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뉴욕 거리의 화려함을 표현한 허드웨어 라지 링크 브레이슬릿 모두 **타파니**, 화이트 톤 서츠 드레스 밴드.



아이스 블루 다이얼과 세류비안 블루 악어 가죽 스트랩을 장착한 오묘한 매력의 메트로 2 밴드 워치. 함께 스타일링한 제품은 손가락을 따라 두 번 휘감은 T 링 링. (오른손) 미니멀 T가 대장을 이루는 구조적인 디자인의 T TWO 링, 화이트 골드 밴드를 따라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T 와이어 FC 링, 레이어링 스타일로 선보인 T 와이어 브레이슬릿과 메트로 한자드 밴글 모두 **타파니**, 브 타입 화이트 서츠와 하운즈투스 체크 케이프 모두 **타파니**.

문의 **타파니** 02-547-9488

헤어 정은구  
메이크업 송은경  
네일 박기현  
스타일링 구동현  
캐스팅 디렉터 김우리  
에디터 배미진, 이지연



# Pact act

K-뷰티의 대표 주자를 넘어, 글로벌 뷰티 하우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쿠션 팩트. 지난해 디올과 입생로랑에 이어, 이번엔 파운데이션의 명가 조르지오 아르마니를 포함한 스킨 메이커업의 최강자 샤넬, 그리고 나스까지 승부수를 던졌다. 여기, 프리미엄 쿠션 팩트의 또 다른 서막이 열렸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랑콤 볼랑 엑스퍼트 쿠션 컴팩트 캐버리지** 완벽한 커버 보단 생기 있고 투명한 피부 톤 연출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자외선 차단도 심의 항산화 성분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모링가 추출물과 비베르틴 성분 함유에 피부가 더욱 건강하게 케어할 수 있다. 상징적인 로즈 심벌이 새겨진 고급스러운 플라티넘 실버 케이스로 선보인다. 14gx2리필 포함 7만5천원대. 문의 080-001-9500

**디올 디올스킨 포어 퍼펙트 쿠션** 핑크빛 트림 쿠션에 이어 또 한 번 진화한 디올의 두 번째 쿠션 팩트다. 기존 팩트의 신뜻하고 가벼운 밀착력에 뛰어난 모공 커버 효과를 더했다. 무려 16시간 동안 지속되는 루나스 메트 피니시 효과로 아침 스킨케어 단계에 가깝게 터치업 하는 것만으로 자제까지 변형없이 유지된다. 컬러에 대한 전문성이 돋보이는 트루 컬러로 피부 톤을 매끄럽고 균일하게 완성해준다. 15g 7만5천원. 문의 080-342-9500

**랑콤 라제리 드 보 쿠션** 보드에 부드럽고 자연스레 밀착되는 실크 리제리처럼, 피부에 아무것도 버리지 않은 듯 내추얼룩잔 투명한 광채 피부를 연출해준다. 아사아 여성들의 피부 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세 가지 뉴트럴 셰이드로 선보이며, 쿠션 가운데 원형 홀이 있는 부분

을 꼭 누르면 정돈된 파운데이션이 나오는 에어리스 펌프 용기로 공기를 차단해 포물리를 신성하게 유지해준다. 수분을 머금은 신뜻한 텍스처로 피부에 바로바로 즉각적인 광택감과 생기를 선사한다. 14g 7만5천원. 문의 080-343-9500

**나스 아쿠아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 나스에서도 처음으로 쿠션 파운데이션을 선보인다. 제 주 동백꽃의 생광력을 담은 안티폴루션 쿠션, 일명 '실드(Shield) 쿠션으로 공기 중 오염 물 질과 미세 먼지로부터 피부를 강력하게 보호해준다. 물론 색조 메이크업의 대표 주자다운 안 박한 밀착력과 커버력은 기본 여기에 아사아 여성들의 피부 톤에 맞춘 여섯 가지 새로운 세 이드를 선보였는데, 이 중 두 가지는 '남산과 '소월'이라는 한국 자정을 재해석해 더욱 눈길을 끈다. 12gx2리필 포함 6만9천원. 문의 02-6906-3747

**샤넬 레 베뉴 헬시 글로우 쉐어 퍼펙트 쿠션** 수많은 '코덕'의 기대를 한껏 모으며 출시된 샤 넬의 쿠션 파운데이션, 샤넬스러운 베이지와 블랙이 어우러진 우아한 사인형 팩트가 먼저 시 슨을 끈다.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위한 아쿠아 쉐어 파운데이션을 신성성 있는 몰레스를 재 질의 초미세 스마트 메시에 응축해 알갱이 버거에 착당한 앙기 스킨에 도포된다. 피부

가득히 느껴지는 수분감과 광택 효과로 헬시 글로 스킨을 연출할 수 있다. 11g 7만5천원. 문의 080-332-2700

**조르지오 아르마니 루고 쿠션** 일명 레드 쿠션이라 불리며 문창과 동시에 완만이라는 패기 를 이룬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첫 번째 쿠션이다. 파운데이션의 명가 제2인인 루고 쿠션은 카바레로 사너 번인 두드러진 피부 결점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동시에 글로 스킨을 완성한 다. 물방울 모양의 스펀지를 활용해 콧방울과 눈 밑 등 굴곡진 부분까지 섬세하게 케어할 수 있다. 또 브랜드의 혁신적 컬러를 담은 파우더 성분 덕에 피부에 닿는 순간 톤에 최적화된 컬러 로 변화된다. 15g 8만9천원. 문의 080-022-3332

**실화수 퍼펙트 쿠션** 티 없이 매끈하면서도 은은한 윤기를 머금을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여성이 이상적인 피부를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업그레이드했다. 완벽한 밀착 커버를 위한 슬림핏 하이 캐버리지 포물리와 차마버섯 유래 성분인 강력한 보습 스킨케어 기술력을 그대 로 반영해, 밀도 높은 커버력과 촉촉한 터치로 완벽한 커버와 윤기를 선사한다. 15gx2리 필 포함 6만5천원대. 문의 080-023-5454 에터 **아이전**



# luxury Essential

섬세한 감성과 최상의 퀄리티를 지향하는 '분더샵 럭셔리 에센셜'. 소재 고유의 아름다움과 기능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쿨한 실루엣의 매력적인 컬렉션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글로벌 패션을 선도하는 것을 넘어,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분더샵. 이제는 분더샵을 단순히 청담동 에 위치한 편집숍이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제는 세계적인 명사가 찾는 글로벌 명소가 아닌, '분더샵'이라는 고유의 브랜드로 영역을 확대했다. 얼마 전에는 모던함과 세련됨, 정제된 기품 등 브랜드의 가치를 표현한 세 가지 향을 네모반듯한 코냑색 병에 담아 출시해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고, 분더샵의 이미지를 더욱 섬세하게 표현해낼 백스즈 주자로 '피와 캐시미어'를 선택했다. 이는 분더샵이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해줄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로 한국과 동시에 세계 4대 패션국 중 하나인 미국의 바니스 뉴욕 백화점에서 분더샵 럭셔리 에센셜을 소개하기 때문. 바니스는 뷰티와 패션계를 선도해 온, 미국이 자랑하는 대표적이자 상징적인 최고급 명품 백화점으로, 9월부터 미국 맨해튼 증심가와 LA 베벌리 힐스 등의 매장, 자사 e-커머스를 통해 세 가지 향의 분더샵 시그니처 퍼프와 1백60여 개가 넘는 분더샵 럭셔리 에센셜 전 라인업을 판매한다. 분더샵에서 새롭게 전하는 분더샵 럭셔리 에센셜은 소재 고유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도, 시그니처 슬릿 디테일을 더해 기능적이면서도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도시의 디자인과 건축, 그리고 현대미술에서 영감을 받아 컨템퍼러리한 감성을 담은 것. 대표적인 소재는 린크와 시어링, 캐시미어로, 고급 소재의 특성을 부각해 소재 자체 본연의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을 조화롭게 표현했다. 이 중 시어링은 프랑스 남부 지방인 라콘(Lacaune)에서 생산되는 최상의 소재로, 보통 양털을 9~13mm 정도로 짧게 깎아 만든다. 평소 목직하고 중후한 이미지 때문에 퍼를 부담스러워하던 이들이라면 분더샵에서 새롭게 소개하는 시어링 컬렉션이 훌륭한 대안이 되어줄 것이다. 목직할 퍼를 가볍고, 젊고, 포근하게 입을 수 있으며, 곳곳에 숨은 특유의 슬릿 디테일로 쿨하고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 있으니! 문의 분더샵 청담 02-2056-1234,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분더샵 럭셔리 에센셜 02- 3479-1353 에터 **아이전**

**Coat Collection**  
(왼쪽) 블랙 시어링 퍼에 옐로 & 레드 배색 지퍼 디테일을 가미한 코트 4백90만원대.  
(오른쪽) 터틀넥 니트 1백29만원대, 짙은 올리브 컬러 시어링과 울을 조합한 코트 4백90만원대. 모두 **분더샵**.



**Vest & Knit Collection**  
(왼쪽) 블랙 시어링 롱 베스트 4백60만원대, 함께 매치한 크림 베이지 컬러 니트 원피스 1백53만원대.  
(오른쪽) 대담한 슬릿 디테일이 돋보이는 최고급 품질의 캐시미어 울로 만든 터틀넥 베스트, 코트 뒷면에 자석 버튼을 더해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9백90만원대, 비비드 레드 색상의 캐시미어 터틀넥 니트, 뒷면의 절개 디테일 때문에 백리스로 선보인다. 96만원대, 와이드 팬츠 99만원대. 모두 **분더샵**.







# BOLD INFLUENCE

자유분방하고 대담하지만 뒤틀림은 잃지 않았다. 강렬한 인상으로 스트리트를 장악할 올 가을, 겨울 남성들의 패션 포트레이트. *photographed by zo sun hi*

(왼쪽부터 순서대로) 베이지 수트 6백만원, 화이트 롱 80만원대 모두 에르메네제르 제나 꾸뛰르, 그레이 재킷 7백60만원대, 조커 팬츠 2백80만원대, 니트 롱 1백90만원대 모두 에르메네제르 제나 꾸뛰르, 언더웨어 니트 롱, 코듀로이 팬츠, 브라운 퍼벤트 모두 가격 미정 프리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체크 재킷 4백30만원, 팬츠 1백32만원, 니트 롱 1백28만원, 화이트 셔츠 92만원, 블랙 슈츠 가격 미정, 실버 타이거 모티브 링 가격 미정 모두 구찌, 하운즈투스 체크 재킷과 베스트,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맨온더본, 옐로 니트 롱 가격 미정 날버넷, 블랙 밴딩 슈츠 57만5천원 아.테스토니, 레드 스트라이프 카디건, 화이트 롱 모두 가격 미정 자방시 by 라카르도 티시, 레드 팬츠 가격 미정 하이더 아카만, 블랙 앵글부츠 1백10만원대 산바토레 페타카모, 플라워 자수 장식 코트 3백62만원, 실크 셔츠 92만원, 브라운 팬츠 1백32만원 모두 구찌, 브라운 슈츠 76만4천원 아.테스토니, 화이트 코트 7백43만원, 옐로 저지 롱 1백24만원, 패딩 팬츠 59만원 모두 펜디, 레드 패틴 니트 롱 1백28만원, 체크 셔츠 92만원, 화이트 팬츠 1백98만원, 블랙 슈츠 1백22만원, 실버 링 가격 미정 모두 구찌.



(왼쪽부터 순서대로) 베이지 수트 6백만원, 화이트 롱 80만원대 모두 에르메네제르 제나 꾸뛰르, 그레이 재킷 7백60만원대, 조커 팬츠 2백80만원대, 니트 롱 1백90만원대 모두 에르메네제르 제나 꾸뛰르, 언더웨어 니트 롱, 코듀로이 팬츠, 브라운 퍼벤트 모두 가격 미정 프리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브라운 퍼워드, 타블 재킷, 그레이 패턴 블, 와이드 팬츠 모두 가격미정  
 조르조 아르마니, 브라운 앵글루트 33163원, 이, 테스트니, 제무 더블 재킷 59800원, 타블 재킷 37100원  
 팬츠 가격 미정 모두 브라운으로 유지하라, 블랙 팬츠 슈츠 57100원, 이, 테스트니, 레더 재킷 69800원,  
 타블 재킷 60000원, 그레이 앵글루트 가격 미정 모두 심비로레 페라기오



(왼쪽부터 순서대로) 브라운 재킷 가격 미정, 팬츠 가격 미정, 블랙 터틀넥 가격 미정, 태슬 장식 슈츠 1백3021원  
 모두 프리다, 버건디 코트 3985021원, 니트 롱 가격 미정, 401비 팬츠 가격 미정 모두 프리다, 블루 터틀넥,  
 브라운 팬츠, 앵글루트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버건디 슈트, 터틀넥, 브라운 슈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왼쪽부터 순서대로) 블랙 니트 톱 1백만원대, 블랙 맨즈 80만원대, 블랙 벨트 50만원대 모두 **바버리**, 레드 체크 재킷과 셔츠, 블랙 피케 셔츠, 블랙 맨즈, 블랙 밴딩 수츠 모두 가격 미정 **휴고보스**, 주얼 장식 재킷, 화이트 피케 셔츠, 블랙 오버올, 스니커즈 모두 가격 미정 **자행시 by 라카르도 티시**.



(왼쪽부터 순서대로) 프린팅 재킷과 맨즈, 블랙 셔츠, 화이트 맨즈 모두 가격 미정 다음 올림, 네이비 수트 가격 미정, 화이트 셔츠 가격 미정, 블랙 맨즈 80만원대, 화이트 스니커즈 1백만원대, 블랙 벨트 70만원대 모두 **휴고보스**, 스니커즈 장신 (재킷과 셔츠, 화이트 맨즈 모두 가격 미정 다음 올림, 블랙 밴딩 수츠 허먼센실 **아 테스토나**, 프린팅 맨즈, 화이트 맨즈, 블랙 셔츠 모두 가격 미정 다음 올림, 티셔츠 가격 미정 **맨드라비**.





(왼쪽부터 순서대로) 다크 그라수트, 화이트 셔츠, 모두 가격미정. 발렌티노, 네이비 스카츠, 캐시미어 미정. 발렌티노 기러비니, 체크 코트, 화이트 터틀넥, 브라운 워커 모두 가격 미정. 발라, 화이트 셔츠, 가격 미정. 랭방, 핑크디드름, 블루 셔츠, 바디리 펜츠 모두 가격미정. 발렌티노, 블랙 & 화이트 스니커즈, 가격 미정. 발렌티노 기러비니.

(왼쪽부터 순서대로) 네이비 재킷 1백75만원, 팬츠 60만원대, 나트 톱 91만원, 어깨에 장식한 헤어밴드 19만원 모두 팬디, 스웨이드 코트 가격 미정, 그레이 자수 셔츠 가격 미정, 블랙 팬츠 가격 미정, 블랙 앵글부츠 1백10만원대 모두 심버트레 페라기모.



헤어 박선호  
메이크업 홍환정  
모델 권환진, 방주호,  
김민중, 신용국, 김경석, 정성훈  
스타일리스트 차환석

팬디 02-726-4500  
유희보스 02-515-4088  
발렌티노 02-2015-4653  
발렌티노 기러비니 02-6905-3610  
발리 02-3467-8935  
랑방 02-3438-6186  
구찌 1577-1921  
맨온더문 02-6911-0727  
심버트레 페라기모 02-3430-7854  
에르메네집도 제너꾸뛰르 02-3453-2287  
자침시 by 리카르도 타시 02-517-7560  
조르잔오 아브마니 02-549-3335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48-2931  
남버렝 02-6905-3698  
아. 테스티니 02-554-4310  
하이더 아부만 02-3479-6222  
디올 옴므 02-3438-0104  
루이 비통 02-3432-1854  
프라다 02-3218-5331  
에르메스 02-544-7722  
버버리 030-700-8800



#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일보〉가 당신의 가을 화장대를 리뉴얼할 뷰티 신상품을 제안한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데상디바 매직프레스 풀링 인 뉴유 컬렉션** 율기를 트랜드 컬러를 중심으로 체크 패턴, 홀로그램 이펙트로 다양하게 구성한 데상디바의 신제품 매직프레스 풀링 인 뉴유 컬렉션. 개개인 피부 톤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이즈를 갖추었으니 집에서 간편하게 스타일링이런 가을 룩을 연출해볼 것. 9만8천원, 문의 0502-090-0000\_by 어시스턴트 에디터 김은서

**랑콤 압출류 루즈 비 비주** 풍부한 발색과 크리미한 텍스처, 그리고 오랜 지속력은 물론, 고급스러운 로즈 향을 선사하는 압출류 루즈가 올림피아 리 탱크의 합입을 통해 시달스로운 입술 모티브를 립스틱에 조각했다. 연인의 달콤한 키스를 기다리는 수줍은 여인의 입술을 형상화한 립스틱이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3.4g 4만2천원, 문의 080-001-9500\_by 에디터 이지연

**세이도 인크스트로크 아이리너** 컬러그래피에서 영감을 받은 세이도의 새로운 아이리너. 전통 사제와 화학에 쓰는 베타인 모티프를 얻은 독특한 V자형 돌기가 있어, 양 조짐은 물론 브러시 모양을 그리기 쉽게 정돈할 수 있어 편리하다. 총 여섯 가지 컬러로 선보이는데, 일본의 흑미 같은 리치엔 브라운 컬러는 평소 아이 메이크업을 진화해 하지 않는 에디터에게 자연스럽고 도정한 눈매를 연출하게 해주었다. 4.5g 3만6천원, 문의 02-3438-6073\_by 에디터 이지연

**닥터지르르 데이크 워킹 러버 마스크** 데이크아웃 커피잔처럼 생긴 이것의 정체는 바로 러버 마스크 팩. 부스타와 하이드로 리퀴드 연물을 함께 넣어 촉촉한 제형이 크림으로 변하는데, 눈과 입가를 제외한 얼굴에 도포한 후 백이 곧은 때에 내는 밀 오트 타입이다. 모공 케어, 수분 충전 등 피부 고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총 네 가지로 출시한다. 50g 8천원, 문의 1544-5453\_by 에디터 이지연

**데코르테 프라임 라테** 촉촉하고 신포에 매일 사용할 수 있는 밀크 에센스. 클래식 향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제형이라 어떤 상황에 사용해도 거부감이 없다. 더운 날씨도, 건조한 날씨, 아침 혹은 저녁, 안팩에도 사용할 수 있는 편안한 느낌이 특징이다. 아보카도, 세이지, 울라브 등 식물성 오일을 담아 진정 효과가 뛰어나다. 150ml 5만2천원, 문의 080-568-3111\_by 에디터 배미진

**디올 루즈 리프트** 쉽게 유지되지 않는다. 선행하다, 깨닫고 싶을 때. 이 제품을 사용하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아파하는 징조이다. 지성상이 뛰어난 리프트가 뛰어난 발색력을 보강해 립스틱 마니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6ml 4만2천원, 문의 02-3438-9631\_by 에디터 배미진

**클라린스 더블 세럼 워터** 베이스와 오일 베이스가 만나 피부에 놀라운 결과를 안겨주는 클라린스의 신제품. 이 듀얼 포뮬러 타입의 더블 세럼은 20가지 식물에서 추출한 인티에이징 피부를 담은 제품이다. 피부에 필요한 다섯 가지 요인인 수분과 영양, 산소, 보호, 재생 기능을 강화해 건강한 활기를 부여하며, 미치 꼭 지키고 일어난 듯 탄력 있는 동안 피부를 만들어준다. 30ml 20만원, 문의 080-542-9052\_by 에디터 이지연

**겐조 월드 오드 퍼퓸** 겐조의 아이코닉함을 담은 펄퍼뷰티 유틸을 자아내는 신상 향수 겐조 월드 오드 퍼퓸. 세기적인 조향사 프란시스코 카스티요가 만든 이 향수는 라즈베리 향과 조화를 이루는 플로럴 향이 여성스러우면서 관능적이다. 75ml 14만원, 문의 080-344-9500\_by 어시스턴트 에디터 김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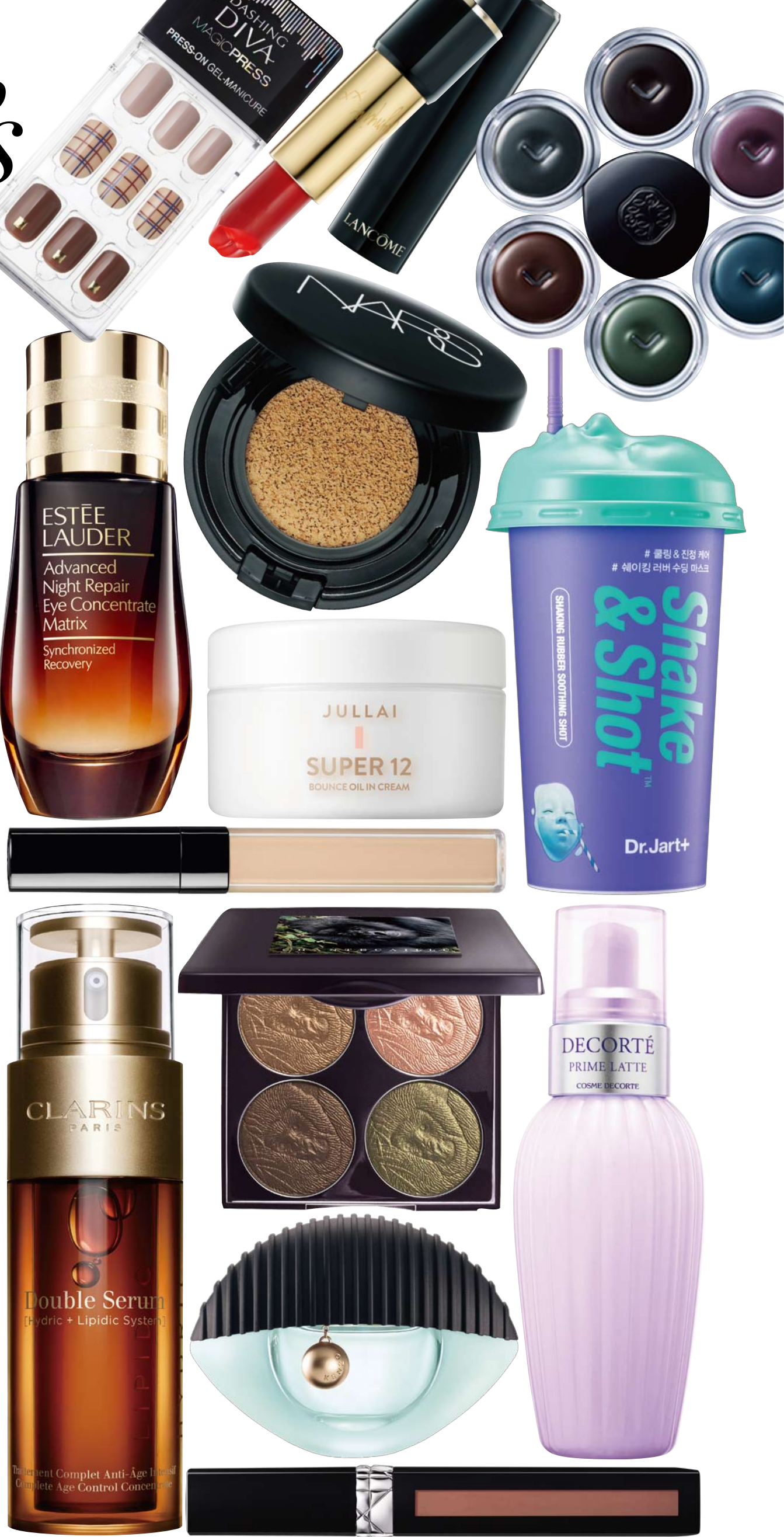
**샹티이 세이브 더 포리스트 아이아드 플리트** 샹티이가 2017년 가을 발표한 트리 활동을 기념하는 에디션으로 선보인 이 제품은 지류성에 미약한 남은 코랄과 사사지인 콩고의 비룡이 국립공원의 무성한 자연이 빛아내는 이듬서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숲을 감싼 새끼가꾸어 종이 들 무렵 하늘을 울리는 금빛 아침 햇살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색을 오묘하게 색조로 표현한 것. 특별한 날을 위한 고풍적인 눈매 연출뿐 아니라 데일리로도 활용 가능한 컬러로 선보인다. 12g 1만2천원, 문의 02-517-0902\_by 에디터 이지연

**샤넬 르 코르베크 드 샤넬** 카바릭이 뛰어난 만큼 담담하지 않은 스미트한 컨셉과, 자연에서 유래한 마비닐 성분을 함유해 빛 반사 효과도 피부 결점과 잔주름을 케어한다. 자외선 차단제에 가볍게 섞어서 사용해도 좋다. 베이지 계열부터 그린, 복숭아 컬러까지 출시해 선택의 폭이 넓다. 7.5ml 4만7천원, 문의 080-332-2700\_by 에디터 배미진

**에스티 로더 감마병 아이 에센스 크림** 브랜드를 대표하는 혁신적인 인티에이징 제품인 감마병 시리즈 중 새롭게 출시한 아이 에센스 크림. 에센스와 크림 재료를 절묘하게 조절한 텍스처가 매력적이다. 보습 효과가 뛰어난 히알루론산을 집중적으로 담아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15ml 10만원, 문의 02-3440-2772\_by 에디터 배미진

**나스 이쿠아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 SPF 23/PA++** 비르는 순간 광택을 잡아내게 하는 새로운 재형의 쿠션으로 촉촉한데 커버력까지 높다. 평소 답답하고 끈적한 느낌 때문에 쿠션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제품은 쿠션에 대한 만족감을 선사했다. 리퀴드 파운데이션의 촉촉함을 고관히 담아 연명다가 높은 여성들에게도 매력적. 12g 6만3천원, 문의 02-6905-3747\_by 에디터 배미진

**줄리아슈퍼 12 비온스 오일 인 크림**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보습을 위해 크림에 오일 1~2%를 넣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제품은 열 가지 식물 유래 고풍 오일과 크림을 최적화된 비율로 혼합해 피부에 가장 완벽한 보습감을 선사한다.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서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 발라 흡수시키면 쫄쫄하고 탱탱한 피부로 거듭날 수 있다. 50ml 5만8천원, 문의 02-514-5167\_by 에디터 이지연



## BEAUTY



**돌체앤가버나** 돌체앤가버나는 구조적인 실루엣과 체크 패턴 인간으로 더욱 패셔너블해진 '뉴요트' 컬렉션을 공개했다. 할리우드 배우 시에나 밀러도 즐겨입는 카코트는 트로피컬 개버나를 사용해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내구성을 갖추었다. 남성과 여성을 위한 27가지 모델로 선보일 수 있다. 문의 080-700-8800

**미스 디올 오드 퍼퓸** 미스 디올은 1947년 탄생한 미스 디올을 재해석한 미스 디올 오드 퍼퓸을 선보인다. 오리지널의 시그니처를 잃지 않은 채 특별함과 매력을 더욱 부각한 미스 디올 오드 퍼퓸은 디올 향수만을 위해 재배하는 그라스 로즈를 담아 관능적이고 달콤한 플로럴 향을 보다 풍성하게 느낄 수 있다. 문의 080-342-9500

**돌체앤가버나 더 윈 오드탈렛** 돌체앤가버나는 화려하고 특별한 그녀를 위한 향수 더 윈 오드탈렛을 출시한다. 더 윈 오드탈렛은 시그니처 노트인 미드나ight를 중심으로 한 오리엔탈 플로럴 향의 화려하고 유혹적인 향수. 황홀하고 감각적이며 여성스러운 향에 이터널인 베르가모트, 화이트 피치 등이 싱그러움 느낌을 더하며 생동감 넘치는 발향을 완성한다. 문의 080-564-7700

**존바버토스 이탄산 퓨어** 존바버토스는 멕시코 베라루스 주의 지상 낙원과 불리는 힐라피에서 영감을 받은 신제품 '이탄산 퓨어'를 선보인다. 따뜻한 햇살 아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담은 이탄산 퓨어는 시트러스한 과일의 notes와 외에서 추출한 트리오 페티그레인 오일의 싱그러움에 우디함을 더해 편안하고 매력 있는 향취를 선사한다. 한편 이탄산 퓨어의 뮤즈로 현대적이고 남성미가 가득한 다니엘 헤니를 발탁해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문의 02-3443-1805

**시몬스 웨딩 프로모션** 시몬스는 들만의 새로운 생명을 감각적으로 스타일링해줄 '웨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전국 시몬스 공식 매장 및 온라인몰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또는 특정 제품 구입 시 시몬스가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케노의 호열 침구 세트 등 다양한 시몬스 제품을 증정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장 갖고 싶은 혼수 아이템으로 사랑하는 시몬스 초대 웨딩 프로모션에 주목해보자. 문의 1899-8182

## LIFESTYLE

# SHOWROOM

## JEWELRYWATCH



**타파니 보우 리본 링** 타파니는 여성스럽고 우아한 디자인에 최상의 광채를 담은 타파니 보우 리본 링을 새롭게 선보인다. 링 센터에 자리 잡은 최상위 0.04%의 엄격하게 선별한 타파니 다이아몬드가 파-판의 세팅 디자인과 카팅으로 거듭나 눈부신 광채를 발산한다. 플래티넘에 비드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센터 스톤을 리본 모양의 유연한 곡선으로 감싸는 디자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타파니 장인 정신을 보여준다. 문의 02-547-9488

**카르띠에 탱크 아메리칸 스틸 워치** 카르띠에는 탱크 워치 탄생 1백 주년을 맞아 탱크 스틸 케이스 버전의 탱크 아메리칸 스틸 워치를 공개했다. 모던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오리지널 탱크 모델의 탁월한 정신을 계승한 탱크 아메리칸 스틸 워치는 손목 위에서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순수한 라인과 시간을 초월하는 고급 스틸 소재의 우아함이 한층 현대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문의 1566-7277



**보티가 베네타** 보티가 베네타는 지난 8월 24일, 갤러리백화점 EAST 2층 여성 부티크 매장 리뉴얼 오프닝 이벤트를 진행했다. 보티가 베네타의 여성 부티크 리뉴얼은 고객들의 편리한 쇼핑 라이프에 초점을 맞췄다. 시선을 사로잡는 디스플레이와 다양한 스타일의 핸드백, 슈즈 등 각 카테고리별로 나눠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아이템과 장인 정신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새 단장했다. 문의 02-515-2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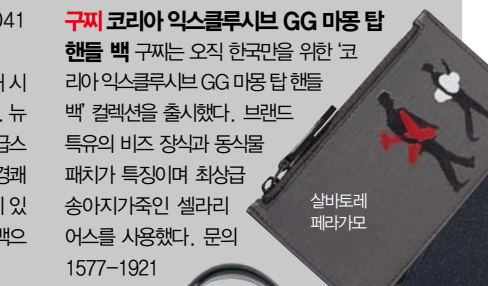
**미노 슈즈를 만들어보자** 문의 02-3479-6041

**아이그너 사일 백** 아이그너는 F/W 시즌을 맞아 시그니처 백인 '사일 백'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시한다. 뉴 사일 백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러운 것이 특징이고, 탈착 가능한 실버 스트랩으로 경쾌함을 더했다. 또 작지만 넉넉한 사이즈의 수납공간이 있어 실용적이며,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려 데일리 백으로 추천한다. 문의 02-546-7764

**샬비토레 페라기모 뉴 카드 케이스** 샬비토레 페라기모는 남성용을 위한 '뉴 카드 케이스' 8종을 출시한다. 2017년 F/W 시즌의 테마인 'Passerby' 모티브로 장식한 디자인과 가죽 엠보싱 기공을 통해 저항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Passerby 모티브 외에도 페라기모 로고 포인트를 준 심플한 디자인도 선보여 취향에 맞게 다양한 디자인도 선택할 수 있다. 문의 02-3430-7854

**몽클레르 블루 클림** 몽클레르는 F/W 컬렉션 중 블루 컬러를 중심으로 한 '블루 클림' 컬렉션을 공개했다. 블루 클림 컬렉션은 울 소재와 함께 안면 코팅 일본산 자재를 사용해 구조적인 레이아웃으로 좀 더 촉촉하고 추위에 강해진 것이 특징이다. 텍스타일이 독특해 모던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514-0900

**몽클레르**



## FASHION



**로가디스**

**토즈 마이 고미노 맞춤 제작 서비스** 토즈는 개인의 취향에 맞추어 제작하는 '마이 고미노' 서비스를 선보인다. 10가지 디자인을 기반으로 가족의 종류와 재질, 컬러, 디테일까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이나실 각인까지 가능하다. 마이 고미노 맞춤 제작 서비스로 나만의 특별한 고